

## 한국 4년 후 국가부채비율 순위 OECD 비기축통화국<sup>주1</sup> 17개국 중 3위

### 「코로나19 발발 이후('20년~'26년) 비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 전망」

- 국가부채비율 증가폭 : 韓 18.8%p ↑ (OECD 전체 1위 vs. OECD 비기축통화국  $\Delta$ 1.0%p ↓)
- \* 한국 국가부채비율 순위(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) : 9위('20년)→3위('26년)
- 비기축통화국 '22년부터 재정건전성 관리로 재정적자 상당 폭 축소 vs. 한국, 코로나발 확장재정 유지되면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지속
- 재정준칙 법제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국가부채 속도 조절 필요

※ 주) ▶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·유로·엔·파운드·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(IMF 특별인출권(SDR) 통화바스켓 기준)로 OECD 37개국 중 17개국 해당  
▶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미국, 영국,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구분해서 비교 필요.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와 국제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글로벌 화폐 수요가 커서 기축통화 국채 수요가 높음 → 기축통화국 정부의 국채발행량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효과 → 기축·비기축통화국 동일선상 비교 부적절 (ex. OECD국가 국가부채비율(IMF, '20년)) : 기축통화국 평균 97.5% > 비기축통화국 평균 56.1%)

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, 국가부채<sup>주1)</sup>가 OECD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.

\* 주1)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부채(D2, 중앙·지방정부+비영리공공기관 부채) 기준

## [국가부채비율('20년 대비 '26년)] 한국 18.8%p 급증 vs. 비기축통화국 $\Delta$ 1.0%p 감소

한국경제연구원(이하 한경연)이 IMF 국가재정 모니터('21.10월)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,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.8%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<sup>주2)</sup>으로 나타났다. 반면, 같은 기간 중 캐나다, 아이슬란드, 헝가리<sup>주3)</sup>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.0%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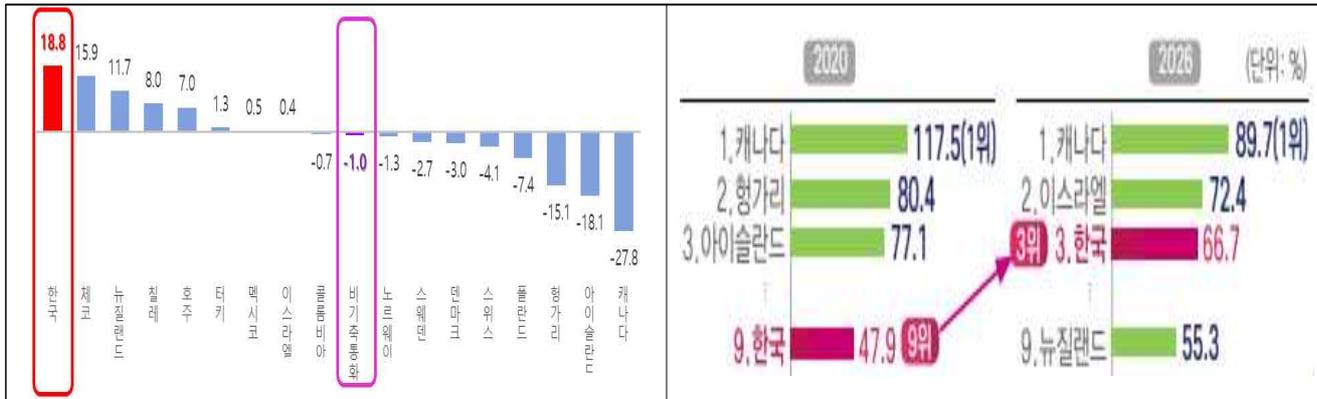
\* 주2) 한국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기축통화국 포함한 OECD 37개국 전체로 확대·비교해도 1위

\* 주3)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부채비율 순위가 가장 높은 3개 국가('20년 기준)로 '26년 국가부채비율 감소폭은 캐나다  $\Delta$ 27.8%(117.5%→89.7%), 아이슬란드  $\Delta$ 18.1%(77.1%→59.0%), 헝가리  $\Delta$ 15.1%(80.4%→65.3%)

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.9%에서 2026년 66.7%로 급증함에 따라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('20년)에서 6계단 뛰어오른 3위('26년)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.

< 비기축통화국 국가부채비율 증감('20~'26년) >

< 한국 국가부채비율 순위 변화('20년 vs '26년) >



\* 주 : '20년은 확정치 '26년은 IMF 전망치, 국가부채비율 순위는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순위

\* 자료 : IMF, Fiscal Monitor '21.10

## [재정지출] 한국 코로나19발 확장재정 '22년 이후에도 유지 vs. 비기축통화국 긴축전환

한경연이 IMF의 주요국 재정지출 전망을 코로나19 발발로 대규모 확장재정이 발생한 2020년~2021년과 그 이후인 2022년~2026년으로 구분<sup>주4)</sup>해서 비교·분석한 결과, 한국은 2022년~2026년 중에도 코로나19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. 반면, 터키<sup>주5)</sup>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중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\* 주4) 재정건전성 비교 시점 구분('20~'21년 vs. '22~'26년)의 근거 :

① OECD국 GDP 합계, 22년부터 코로나 이전('19년) 수준 상회하면서 재정부담 완화

※ OECD 실질 GDP 추이('19년=100, OECD) 95('20년)→100('21년)→104('22년)→107('23년)→109('24년)

② 워드코로나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감소

※ 주요국 피해계층 지원예산 감소율('21년 결산 대비 '22년 예산): 미국 △90.5%, 독일 △83.1%, 프랑스 △96.5%

\* 주5) 터키는 코로나19('20~'21년) 이후 재정지출 수준이 더욱 확대

실제로 2020년~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, 2022년~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.6인 반면,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.0로 나타났다.

<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비교 ('20~'21년) vs. ('22~'26년) >



- \* 주 : 1) '22~'26년 GDP 대비 재정지출 / '20~'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× 100
- 2) 한국은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OECD 37개국 중에서도 2위
- \* 자료 : IMF Fiscal Monitor('21.10)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

**[통합재정수지] 한국 재정적자 감소 폭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작아**

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('20~'21년) 이후인, 2022년~2026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. 반면,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2022년~2026년 중에 재정적자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.

실제로, 2020년~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<sup>주6)</sup> 적자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, 2022년~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.0인 반면,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.6으로 나타나, 한국의 재정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을 것으로 전망되었다.

- \* 주6)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, 일반·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

< 비기축통화국의 GDP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 비교 ('20~'21년) vs. ('22~'26년) >



- \* 주 : 1) '22~'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/ '20~'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× 100
- 2) 한국은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OECD 37개국 중에서도 2위
- \* 자료 : IMF Fiscal Monitor('21.10)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

## [장기 · 잠재리스크] 잠재성장을 하락, 저출산·고령화 등 한국 국가부채 리스크 大

한경연은 한국이 최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,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았다.

한경연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<sup>주7)</sup>과 장기 잠재성장률 급락<sup>주8)</sup>으로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, 인구 고령화<sup>주9)</sup>로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- \* 주7) 합계출산율 (명, OECD) : OECD 평균 1.7('00년)→1.61('19년) vs. 한국 1.48('00년)→0.84('20년)
- \* 주8) 잠재성장률 전망 (% , OECD) : 3.8('00~'07년)→2.8('07~'20년)→1.9('20~'30년)→0.8('30~'60년)
- \* 주9) 최근 5년('16~'20년) 노인인구비율 증가폭(%p, World Bank) : OECD 평균 1.3 vs. 한국 2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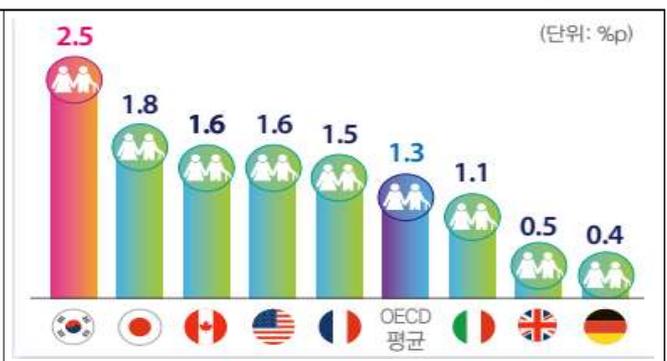
한경연은 또한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(D2)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지급보증해 사실상 정부 부채로 봐야 할 비금융공기업 부채 또한 OECD 2위 수준<sup>주10)</sup>이며,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 또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.

- \* 주10) OECD 국가 중 해당통계를 공개하는 14개 국가 기준('21년 추정치, World Bank)

< 잠재성장률 전망 >



< 주요국 최근 5년 '16~'20년 노인인구비율 증가폭 >



- \* 주) '16년 대비 '20년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(65세이상) 비율의 증가폭
- \* 자료 : 좌측 OECD, 우측 World Bank

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“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”이라며, “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, 저출산·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한다”라고 주장했다.